

다층모형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종필*, 윤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A Study on Multi-level Models i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 Moderating Effect of Elderly's Leisure Activity and Social Support

Jong-Pil Kang*, Jiyoung Yoon**
University Of Seoul*,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로, 인구학적 배경, 경제 활동과 함께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의 독거노인 890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에 따른 무선평과를 가져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도에 사는 경우 광역시나 서울시에 사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 여가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여가참여를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생산적 여가참여의 촉진책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 생산적 여가참여, 사회적지지, 다층모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influenced by demographic background, economic activity, productive leisure particip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ata in this study was from 5th Korean Retirement Income Study, and 890 elderly living alone were extracted and analyzed, and a multi-level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becau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has a random effect according to the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living alone showed high life satisfaction when they live in province rather than Seoul or metropolitan city, spend higher living expenses, do economic activities, and they are economically independent. Second, those who participated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y were more satisfied with life than those who did not, and those who have social support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fe.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leisure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moderated by social support. When the elderly living alone participate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they feel mor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al support given to them.

Key Words : Elderly living alone, Life satisfaction, Productive leisur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Multi-level models

Received 4 April 2017, Revised 1 May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Yoon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Email: ellie5900@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망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1].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 속도는 전체 노인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독거노인이 2005년 약 776천명에서 2015년 약 1,379천명으로 1.8배 증가하였고,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은 2005년 17.8%에서 2015년에는 20.8%, 2025년 21.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빈곤, 건강, 소외, 자살 등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겪고 있다[4,5,6,7].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하여 노인부부나 가족동거 노인들에 비해 그 삶이 전반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에 있다. 독거노인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낮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영양부족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8,9,10,11,12]. 또한,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열악한 상태에 있는 독거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아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13,14,15,16].

삶의 만족도는 다차원적, 주관적이고,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17].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만족도는 노년기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보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Sousa와 Lyubomirsky[18]는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바라는 것과 삶의 전분야에서 욕구충족이 되어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9].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아진다는 연구와 낮아진다는 연구가 함께 제시되어 왔다[20,21,22].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노년기를 행복하고 성공

적으로 보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립과 집행 등 실천적 측면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23,2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부부나 가족동거 노인에 비해 여가활동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가 적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그 자체로서 영향을 주고, 동시에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여가활동 중에서 영향력이 큰 생산적 여가활동에 대해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생산적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 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독거노인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과 함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지지 등을 다수의 연구들이 포함하고 있다[16,25,26].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과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교육수준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27,28,29,30]. 경제적 특성 중 높은 소득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활동 여부는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31,32,33]. 건강 특성 중 주관적 건강인식과 신체기능 등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4,35,36].

2.2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소득이 낮은 경우 여가의 한계효용은 음의 값을 보이기도 하는데[37], 노년기가 되면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

축소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가활동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고, 단순하고 분석이 용이한 Erik과 Koen의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 분류유형을 사용하고자 한다[38]. 생산적 여가활동은 능동적, 창의적 활동으로서 스포츠 활동, 취미·학습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등이 해당된다. 소비적 여가활동은 수동적, 시간 소비적이며, TV시청, 라디오청취, 휴식 등 소일활동과 바둑, 장기, 친구들과의 대화 등의 오락·사교활동 등이 해당된다[8,39].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의 사회 활동 정도가 활발할수록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지며, 노년기 여가활동은 우울감을 낮추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40,41,42,43,44,45].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로는 이현지의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생산적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신상식의 연구에서 생산적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갑숙 등의 연구에서도, 생산적 여가활동이 소비적 여가활동에 비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독거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본 다른 연구로는, 김예성 등의 연구에서 생산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바가 있다[8,9,39,46].

2.3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교제 및 정보의 교환, 스트레스 완화, 보호와 지원 제공 등을 통해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고, 건강하고 활발한 삶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47,48,49]. 노년기에는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며, 특히 독거노인은 노인부부나 가족동거 노인에 비해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선행연구를 보면, 김기태 등의 연구[50]에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집단보다 높았다. 김희경 등의 연구[51]에서는 여성독거노인은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 이상철 등의 연구[52]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로 그 영향력 차이를 본 결과, 빈곤한 독거노인 가구는 친구나 이웃의 물질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빈곤하지 않은 독거노인 가구는 친구나 이웃의 정서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 외에 조절변수로서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여가활동이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노인의 자살행동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로 여가활동만을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53].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에 주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Satio 등의 연구에서 친구지지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강화시키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Hays 등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신체건강의 감퇴가 우울증을 유발시키는데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54,55]. 이갑숙 등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여가활동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고, 조상희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여가활동 참여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8,56].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도 제시되고 있는데, 김희경 등의 연구에서 우울과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여가활동, 경제활동, 봉사활동)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으나, 사회적 활동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1].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산적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생산적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독거노인의 인구학적 배경 중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독거노인의 경제적 배경 중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생산적 여가활동 여부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 중 5차시기에 독거노인으로 분류되는 890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28.29, 표준편차는 5.41이며, 남자가 132명 여자가 758명, 나이는 평균 75.34세이다. 지역은 도가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 서울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무학과 초졸이 가장 많았다. 생활비는 평균 60만원이며, 경제활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540명으로 하는 사람보다 약 두 배 많았다. 경제적 독립 역시 경제활동 유무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고 생산적 여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267명, 하지 않는 사람이 623명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51.69, 표준편차 .39로 확인되었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ions

Variance		Mean (N)	SD (%)
Life satisfaction		28.29	5.41
Sex	Man	(132)	(14.83%)
	Woman	(758)	(85.17%)
Age		75.34	6.03
Region	Seoul	(106)	(11.91%)
	City	(215)	(24.16%)
	Province	(569)	(63.93%)
Education level	None	(342)	(38.43%)
	Primary	(371)	(41.69%)
	Middle	(84)	(9.44%)
	High	(93)	(10.45%)
The cost of living(10,000won)		60.13	31.25
Economic activity	Yes	(263)	(32.75%)
	No	(540)	(67.25%)
Economic independence	Yes	(241)	(27.14%)

3.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에 포함된 설문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삶의 만족도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총 5문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7].

독립변수 중 생산적 여가에 참여하는 가를 확인하고자 김예성, 하용용[9]의 연구에서 생산적 여가를 ‘운동’, ‘봉사활동’, 여행’으로 구성한 것을 기반으로 전체 21문항 중 평일과 주말에 공연이나 전시관람, 혼자서 하는 운동이나 여럿이 하는 운동,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가를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5차년도 부가조사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지척도 18문항을 사용하였다[57].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먼저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산적 여가 참여여부,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역 단위에 따라 내포(nested)되어 있는 위계적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지역의 독거노인들은 그 특성이 비슷한 성질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한 대상자의 자료는 다른 대상자의 자료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관찰의 독립성’을 위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을 사용함으로써 1종 오류가 높아지거나 표준오차를 과소추정하게 되는 관찰의 독립성 위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분석은 Stata SE 12.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학적 통계

모형 검증 전에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2>와 같이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지역, 교육수준, 경제활동 유무,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차이를 보였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는 독거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수준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경제적 독립을 한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different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n participations

Variance		Mean	SD	t (F)
Life satisfaction		28.29	5.41	-
Sex	Man	28.93	.47	1.48
	Woman	28.18	.20	
Region	Seoul	27.15	5.58	8.43*** (Province>City, Seoul)
	City	27.39	5.55	
	Province	28.84	5.25	
Education level	None	27.53	5.02	3.98** (Primary>None)
	Primary	28.64	5.04	
	Middle	28.81	6.13	
	High	29.21	5.89	
Economic activity	Yes	30.44	.32	8.39***
	No	27.11	.23	
Economic independence	Yes	31.84	.28	13.02***
	No	26.96	.20	
Productive leisure	Yes	28.33	.34	.14
	No	28.27	.21	

4.2 모형 검증 결과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지역에 따른 무선효과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고자 무선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가를 확인한 결과, 지역 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ICC(Intra class correlation)은 .11로 확인되었고, 이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분산 중 11%가 사는 지역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형의 무선택편의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자료에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Chi²=9.02, p<.001).

<Table 3>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Variance	Model 0	
	B	SE
Intercept	27.89***	.45
Multi-level effect	.69	9.02
Model Log-Likelihood	-2754.50	

<Table 4>와 같이 모형 1은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모형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B(SE)=-.15(.03), z=-4.86, p<.001)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며, 도에 살수록(B(SE)=2.14(.57), z=3.77, p<.001),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수록(B(SE)=1.68(.67), z=2.51, p<.05)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에 추가로 경제상태를 포함한 모형이다. 먼저, 광역시나(B(SE)=1.20(.58), z=2.07, p<.05) 도에 살수록(B(SE)=2.00(.53), z=3.78, p<.001)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 변수 중 생활비가 많을수록(B(SE)=.03(.01), z=5.42, p<.001),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B(SE)=2.47(.44), z=5.66, p<.001) 경제적으로 독립된 독거노인(B(SE)=3.13(.42), z=7.42, p<.001)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모형 3은 모형 2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상태 변수를 통제한 모형에 생산적 여가 참여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모형이다. 모형 3과 마찬가지로 도에 살수록(B(SE)=1.83(.50), z=3.67, p<.001), 생활비가 많을수록(B(SE)=.02(.01), z=3.80, p<.001),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B(SE)=2.41(.41), z=5.85, p<.001) 경제적으로 독립된 독거노인일수록(B(SE)=2.84(.40), z=7.12, p<.001) 삶의 만족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 여가참여를 하는 경우(B(SE)=3.57(1.59), z=2.24, p<.05),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B(SE)=.12(.02), z=7.45, p<.001)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며, 생산적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B(SE)=.07(.03), z=2.22, p<.05) 전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Demographic factor							
Sex (Women)	-.33	.53	.19	.49	-.35	.46	
Age	-.15***	.03	-.02	.03	-.02	.03	
Region	Seoul						
	City	.34	.62	1.20*	.58	.90+	.55
	Province	2.14***	.57	2.00***	.53	1.83***	.50
Education level	None						
	Primary	.90*	.41	.35	.38	.27	.35
	Middle	1.24+	.67	.72	.63	.66	.59
	High	1.68*	.67	-.08	.65	.09	.62
Economic							
The cost of living			.03***	.01	.02***	.01	
Economic activity (Yes)			2.48***	.44	2.41***	.41	
Economic independence (Yes)			3.13***	.42	2.83***	.40	
Productive leisure & Social support							
Productive leisure (Yes)					3.57*	1.59	
Social support					.12***	.02	
Moderate effect					.07*	.03	
Intercept	37.56***	2.52	29.99***	2.44	24.88***	2.41	
Multi-level effect	SD	Chi ²	SD	Chi ²	SD	Chi ²	
	<.001	<.001	<.001	<.001	<.001	<.001	
Model Log Likelihood	-2728.50		-2498.22		-2447.41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 교육수준, 경제활동 유무,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역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도에 사는 독거노인이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는 독거노인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8,15,23,24,58,59]. 경제활동을 하거나 경제적 독립을 한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중 경제활동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취업 노인이 비취업 노인보다 삶

의 만족도가 높은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3,29,35,58].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선행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취업과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60].

다층모형 분석결과에서는 독거노인이 도에 사는 경우 광역시, 서울시에 사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독거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생산적 여가참여를 하는 경우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현지의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생산적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8,39,46].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50,52,61].

생산적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김희경 등의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51]. 김희경 등의 연구[36]에서는 우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독거노인의 생산적 여가 참여와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정적 영향을 주며, 생산적 여가참여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데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 첫째, 독거노인들의 생산적 여가참여 촉진책이 필요하다. 독거노인의 경우 여가참여에 소극적이므로 생산적 여가참여 프로그램을 대상노인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건강상태, 취미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마련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적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

이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독거노인은 지역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해당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여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방문 등을 통한 안내 및 홍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노인들은 청장년기에 생산적 여가활동 경험이 많지 않았던 세대로서, 여가학습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장년기부터 생산적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8,9].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생산적 여가참여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에 대해 이웃, 친구, 지역사회 지지망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기존 지지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지망 구축, 강화는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주민과 복지 시설과 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갖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다층의 소득보장체계를 갖춰 나가 고, 방문보건사업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후원, 결연 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이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해 독거노인이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심리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47,59].

본 연구에서 도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이 서울시나 광역시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도 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생활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생활비가 소득수준이 반영되어 생활비가 많은 것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여가참여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주 여가활동이 '비생산적 여가'라고 말할 수 있는 TV 시청, 가족 돌봄 등으로 나타난 바, 이를 반영한 연구 모형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본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하위 차원을 고려하여 어떤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가 미미한 '독거노인'을 주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삶의 만족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i-Hye Kim, Je-Ran Chun, Seong-Ae Hong, "Factors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fluencing Old Patient's Decision of Advance Directives Attitud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6, No. 4, pp. 123-129, 2016.
- [2] DOI: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aSeq=352215
- [3] DOI:<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 [4] Sung Ho Hu, Jong Dae Kim, "Analysis of Multi-level Effectiveness on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at KLIPS 2006",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1 No. 2, 2011.
- [5] Joo-Yeon Lee, Young-Sook, Moon, "Effects of Chronic Pai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uicide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445-458, 2015.
- [6] Hee-Seung S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Walking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Walk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515-525, 2016.
- [7] Nam Hee Kim, Sun Young Lim, "Convergence Study on Diabetes Self-Management Knowledge, Social Support, Educational Needs of the diabetes in rural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3, pp. 79-89, 2017.
- [8] Gab-Suk Lee, Wang-Kyu Lim, "Effects of the Leisure Activity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10, pp. 291-306, 2012.

- [9] Ye Sung Kim, Woong Yong Ha, "A Study of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on the Suicide Ideation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Living Alon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5 No. 4, pp. 344-374, 2015.
- [10] Young Choi, "Household Types and Health Status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9, pp. 123-149, 2005.
- [11] Ji-Sun Park, Young-Ju Yu,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63-70, 2016.
- [12] Sung-Hui Cho,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423-431, 2015.
- [13] Min-Ah Lee, Jibum Kim, Jeong-han Kang, "Living Arrangement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29, pp. 41-67, 2011.
- [14] Hye Kyung Han, Yu Ri Lee, "A Study on Factors Impacting on the Mental Health Level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3, pp. 805-822, 2009.
- [15] Soon-Mi Yang, Sook-Ja Hong, "Living Arrangement and Psychological Loneliness of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1, No. 6, pp. 129-139, 2003.
- [16] Hyun Jung Kang, "Social Activity and Satisfaction of Life in Female Elders Living Alone in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1, pp. 1-26, 2009.
- [17] Suk-Hee Choi, Sun-Hee Song, "The Effect of elderly Wisdom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9-59, 2014.
- [18] Sousa, L., Lyubomirsky, S. "Life satisfaction."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 and impact of society on gender*, Vol. 2, pp. 667-676, 2001.
- [19] Soo-young Kim, Kyung-joo Moon, Su-jie Chang, Exploring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Baby Boomers by Using Multi-Level Analysi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1, No. 4, pp. 391-421, 2016.
- [20] Dong Bae Kim, Ene Young Park, Seong Ung Kim, The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by the Asset Types: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Economic Activity,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3, pp. 471-494, 2009.
- [21] Jeong Hwa Lee, Gyeong Hye Han, The Effects of Work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Vol. 13, No. 1, pp. 209-238, 2003.
- [22] McClelland, K. A., "Self-conception and life satisfaction: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7, No. 6, pp. 723-732, 1982.
- [23] Jung Ui Le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S. Korea: Differences by Educat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3, pp. 709-726, 2010.
- [24] Sungwon Kim, Eunjin Lee, Soondool Chung,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using Hierarchical Model Analysis focused on Individual and Community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6 No. 3, pp. 581-594, 2016.
- [25] Seong Gyu Lee, "Factors Affecting Baby Boomer's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73-86, 2014.
- [26] Yi-cheol Kim, Jina Paik,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79-287, 2016.
- [27] Tae Hyun Kim, Eun Joo Han, "Relationship of Self-Esteem, Stress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 to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Living-Alon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9,

- No. 3, pp. 81-106, 2004.
- [28] Gaymu, J., & Springer, S., "Living condi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Europeans living alone : a gender and cross-country analysis." *Ageing and Society*, Vol. 30, pp. 1153-1175, 2010.
- [29] Jung Don Kwon, Ju Yeon Cho,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3, pp. 61-76, 2000.
- [30] Ki Nam Park,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3, pp. 13-29, 2004.
- [31] Young Bum Kim, Joon Shik Park, "The Family Network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1, pp. 169-185, 2004.
- [32] Min-Ah Lee, Jibum Kim, Jeong-han Kang, "Living Arrangement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29, pp. 41-67, 2011.
- [33] Yong Min Choe, Sang Ju Le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ocial Support Network for Single Home-owned Old Peopl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2, pp. 193-217, 2003.
- [34] Hays, J. C., George, L. K., "The Life-Course Trajectory Toward Living Alone." *Research on aging*, Vol. 24, No. 3, pp. 283-307, 2002.
- [35] Kwuy Bun Kim, Yun Jung Lee, So hyune Sok,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Elderly Living with Family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0, No. 5, pp. 765-777. 2008.
- [36] Hee Kyung Kim, Hyun Ju Lee, Soon Mi Park,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2, pp. 279-292, 2010.
- [37] Yu-Mi Jang, "A Study on Labor Market Policy according Wage and Labor time in the Ko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3, No. 1, pp. 7-13, 2013.
- [38] Erik Van Ingen, Koen Van Eijck, "Leisure and SocialCapital, *Leisure Sciences*." Vol. 31, No. 2, pp. 192-206, 2009.
- [39] Sang-Shik Shin, "The Effects of Elderly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1.
- [40] Havinghurst, R. J., and Albrecht, R.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pp. 316, 1953.
- [41] Ragheb, M. G., Griffith, C. A.,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of older pers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4, No. 4, pp. 295-306, 1982.
- [42] Riddick, C. C., "Leisure satisfaction precurs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8, No. 4, pp. 259-265, 1986.
- [43] Hye Young Baek,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Aged Participating in Senior Citizen's Center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8, No. 4, pp. 73-92, 2012.
- [44] Hye-Jung Choi, Soon-Ki Back, "A Study on Depressive disposition by Convergence approach of Leisure History and Family situation in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95-302, 2015.
- [45] Sun Woo Lee, "Effects of Positive Attitude of Laughter Recreation Convergence Education on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37-49, 2015.
- [46] Hyunji Lee, "The impact of social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community-dwelling elderly:comparing living arrangemen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8, pp. 269-290, 2014.
- [47] Ok Hee Kim, "Analysis of Effects which Social Supports and Cohabiting Influence on the Elderly's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2, pp. 234-255, 2013.

- [48] Jae Yop Kim, Yun Kyung Chung, Jeon Suk Le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ive Relationship in the Contribution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Domestic Child Abuse to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1, pp. 119-144, 2009.
- [49] Rusell, D., Taylor, J., "Living alon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influence of gender, physical disability, and social support among hispanic and non-hispanic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Vol. 64, No. 1, pp. 95-104, 2009.
- [50] Ki Tae Kim, Bong Gil Park,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1, pp. 153-168, 2000.
- [51] Hee Kyung Kim, Qin Lan Lin, Jung Sun Ann,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1 No. 1, pp. 33-47, 2011.
- [52] Sangchul Lee, Heejeong Jeon, "The Effects of Combined Indicator in Income Level and Living Arrangemen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51, pp. 53-76, 2016.
- [53] Eun Surk Yi, "The Effects Suicide-Buffering Testing of Leisure Activity for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23, No. 3, pp. 179-203, 2010.
- [54] E. Saito, Y. Sagawa, K. Kanagawa, "Social support as a predictor of health status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Japan." Nursing and Health Sciences, Vol. 7, pp. 29-63, 2005.
- [55] J. C. Hays, W. B. Saunders, E. P. Flint, B. H. Kaplan, D. G. Blazer,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s risk factors for loss of physical function in late life.," Aging and Mental Health, Vol. 1, No. 3, pp. 209-220, 1997.
- [56] Sang Hee Jo,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Aged at the Leisure to the Social Network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he Hanyoung Academic Journal, Vol. 4, pp. 431-456, 2012.
- [57] DOI: http://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panel/panel_01.jsp
- [58] Jae Eun Seok, Eun Jin Jang,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Resource by Gender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1, No. 2, pp. 321-349, 2016.
- [59] Na Rae Bae, Chung Sun Park,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2, pp. 761-779, 2009.
- [60] Young Choi, "Economic and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4, No. 4, pp. 103-123, 2008.
- [61] Yoo-Mee Song, Sun-Ja Lee, Mi-Sook Ko, "The Mediational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Alone-Living Elder's Isolat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Vol. 16, No. 4, pp. 369-391, 2010.

강 종 필(Kang, Jong Pil)



- 1987년 8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 2012년 6월 : 서울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관심분야 : 노인복지
- E-Mail : riverhnh@uos.ac.kr

윤 지 영(Yoon, Ji Young)



- 2009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전공(석사)
- 2016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육측정 및 평가 전공(박사)
- 2016년 6월 ~ 현재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

- 관심분야 : 구조방정식 모형, 다층모형, 연구방법론
- E-Mail : ellie5900@naver.com